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OSPI200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주식현물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합니다.

주식현물 바스켓: KOSPI200지수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150개 내외의 주식으로 바스켓 구성

KOSPI200지수선물 매매: KOSPI200지수와 KOSPI200지수선물과의 차이인 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여 주식현물바스켓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우 투자 실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822억 원

-모투자신탁 1,813억 원

펀드유형

- 주식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F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C-P2(연금지축) : 2014년 05월 02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벤치마크

KOSPI200 100%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수탁)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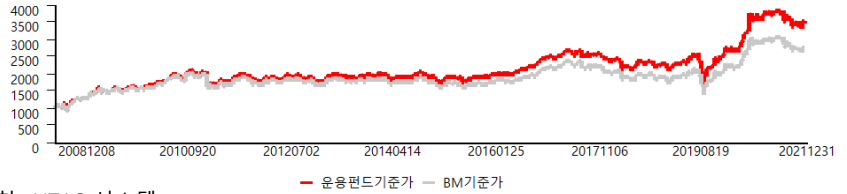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6.83%	-0.30%	-8.59%	4.48%	41.66%	62.90%	71.20%	249.06%
클래스 A-E	6.80%	-0.39%	-8.77%	4.09%	40.63%	61.20%	68.12%	75.13%
클래스 C-F	6.81%	-0.36%	-8.72%	4.20%	40.92%	61.60%	68.91%	236.92%
클래스 C-P2(연금지축)	6.78%	-0.45%	-8.87%	3.85%	39.99%	60.00%	66.10%	77.20%
클래스 S	6.80%	-0.39%	-8.76%	4.10%	40.64%	61.12%	68.08%	76.33%
벤치마크	5.61%	-1.77%	-10.17%	1.26%	34.18%	50.47%	51.61%	172.0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9.8	현대차	운수장비	2.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5.9	LG화학	화학	2.3
NAVER	서비스업	4.1	셀트리온	의약품	1.7
카카오	서비스업	2.9	기아	운수장비	1.7
삼성SDI	전기,전자	2.7	KB금융	금융업	1.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2725% (판매 0.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0.6125% (판매 0.38%)
- 클래스 S : 총 연 0.3725% (판매 0.14%)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4.88% 상승, KOSPI200 5.61% 상승, KOSDAQ은 7.08% 상승했습니다. 동 기간 국내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월 중반까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이 미국 내 지배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단키트 무료배포 및 검사장 증설 등의 조치를 선택했고 봉쇄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와 영국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 역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방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최근 비대면 수요에 PC와 서버 수요 하락폭이 기존 예상치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업황 개선 전망이 부각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반도체, 운송, 정유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약, 화학, 인터넷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말 양도세 이슈로 개인투자자들은 배당락 전날까지 매도흐름을 보인 후 재차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5원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5.21달러로 전월 대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2월 한달간 코스피(KOSPI) 기준 국내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약 2.8조원, 약 3.4조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022년 1월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형업종 중심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경제영향력 감소 및 공급병목 현상의 완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및 서구권 코로나19관련 우려는 2월 이후에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1월 후반부터는 전반적인 제조업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확대, 고용증가 및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기차 및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견조한 수출 경기 등은 국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인상 우려는 하반기 조정으로 선반영되었고 여전히 확장 국면의 글로벌 경기, 지난 해 대비 물가 상승세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로의 정책 선회 등이 연초 시장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PE valuation 이 역사적 평균 수준에 위치해 있고 시장 이익 추정치도 견고한 점,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다만 LG 에너지솔루션 IPO 이슈는 대형주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2년 실적 개선 종목, 반도체,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출주,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with 코로나 관련주, 경기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 실적 대비 저평가주가 핵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가치주가 우세한 상황에서 괴리가 높아질 경우 가치주와 구조적 성장주의 로테이션 매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익거래와 지수펀입, IPO 참여, 기업 이벤트 관련 트레이딩 또한 지속적으로 구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